

전남

땅끝 천년꿈길·옛 선인의 길·생태탐방길

해남 테마가 있는 순례길 만든다

해남군이 역사와 문화·생태가 살아 숨 쉬는 옛길과 숲길 복원에 나선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천년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송지면 미항사의 옛길을 비롯해 땅끝으로 가는 아름다운 해남 길을 따라 걷는 '땅끝 천년꿈길', 공릉과 철새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길' 등을 조성하는 등 도보 여행객들을 위한 '해남 순례길'을 만들 계획이다.

'땅끝 천년꿈길'은 송지면 갈무리 땅끝에서 출발해 미항사 도솔암~현산면 산촌마을 덕흥리~대흥사~녹우당~강진 다산초당~도보로 4일만에 걸쳐 28시간 동안 순례를 할 수 있다.

또 공재 윤두서, 고산 윤선도, 다산 정약용 등 옛 선인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옛 선인의 길'은 현산면 두모패총을 시작으로 백포리(윤두서 고택)~금쇄동(윤고산 묘소)~대흥사~녹우당~다산초당~강진 정약용 길 코스로 60km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릉과 철새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길'은 화산면 고천암 철새 도래지~황산면 옥돌광산~우량리 공릉화석지~보해 매화농원~산이면 해남광장까지 20km 구간으로 7시간여가 소요된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미항사에서는 주민의 금강산비를 비롯해 해남지역의 역사·문화·지리분야에 식견이 있는 지역인 10여 명이 모

였다. 이들은 아름다운 옛길을 복원하고 가꾸기 위해 두발로 길을 찾아 나선다는 뜻에서 '두발로데이'로 모임이름을 붙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옛길을 복원하고 '땅끝 꿈길'을 비롯해 지역의 역사와 의미가 깃든 이름을 찾아 새롭게 부르기로 했다. 이들은 매월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탐방로를 개설하는 등 역사와 문화·생태가 어우러지는 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제가 있는 역사·문화·생태탐방로를 개발하고,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국토순례 1번지'로서 해남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그동안 도보여행 협회와 여행작가협회 회원 등을 초청, 숲길과 옛길 대상을 답사한 뒤 지름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장흥군 내년 경상경비 20% 삭감

지방교부세 감액·이자수입 감소...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감액과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감소 영향으로 장흥군의 내년 예산은 공무원 여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와 지역개발 분야에서 10~20% 이상 삭감해야 할 형편에 놓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내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90억원)을 감액한다는 지원 방

침과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10억원) 등 100여억원의 결손이 발생해 내년도 지역개발과 시설 투자 분야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을 비롯한 지역개발분야에 군비 부담에 어려움을 감안해 직원여비,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일과성 행사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올해예산 기준에 20%를 삭감해 시설비 투자에 전한 시킬 계획이다.

군은 올해에도 로하스타운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해 1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행안부로부터 1.6%의 이자보존혜택을 받은바 있다.

장흥군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수준인 특별회계 200억원에 포함 총 2천6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교부세 지원금에 46%에 해당하는 1천250여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흥군은 올해 정남진 로하스타운 건립(60억원), 여성향상센터, 어린이 도서관, 우드랜드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남 희귀나무 전자지도 만든다

보호수 3,747그루 수록

전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거수와 희귀목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지도가 만들어진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보존 가치가 높아 지정·등록해 관리하는 보호수 총 3천747그루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호수 전자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상 보호수는 느티나무 2천135그루, 팽나무 660그루, 소나무 344그루, 동백 85그루, 푸조 72그루, 기타 451그루 등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산림용 GPS(위성항법장치) 장비를 활용

해 보호수의 정확한 위치좌표와 지정 목적, 나무 이름, 나이, 가슴높이 두께, 높이, 생육·관리상태, 사진 정보 등을 파악해 전자 지도에 수록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하고 보호수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맞춤형 보호수 지도 제작이 가능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이나 관광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장성 고품질 쌀 6,700t 팔렸다

작년 2배 넘어서

장성군이 이 고품질 브랜드 쌀 판매량 7천t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공직자 쌀팔기 운동, 온라인 쇼핑몰 입점, 대형유통업체 구매협약 등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모두 6천700여t의 브랜드 쌀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인 3천300t보다 두 배를 넘는 양으로, 군은 연말까지 7천t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브랜드 쌀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공직자와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쌀 팔기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3천100여 명이 참여해 20kg들이 15만1천972포, 3천39t을 판매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를 실시했다. 지난 4월부터 대표적인 쇼핑몰인 11번가·옥션·G마켓 등 7개 쇼핑몰에 입점, 365살과 드림쌀을 12만포 2천400t을 판매했다.

/장성=김용기기자 yongho@

“화순, 암통합 치료·연구센터 최적지”

화순군이 양·한방 암통합 치료 최적지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범희승 화순 전남대병원장은 1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암통합(양한방) 치료연구센터 건립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최종 보고회에서 “화순은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인 양·한방 협진 의료산업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방 원장은 “암 치료에 대한 양·한방 협진 모델이 구축되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되고 치료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화순군은 상당 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자금으로 양·한방 암 통합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세대(제 4세대) 암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암 면역치료는 정상은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인 양·한방 협진 의료산업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전남준 군수는 “화순이 암 통합 면역치료의 중심지로 부각, ‘테라피 화순’을 지향하고 있는 화순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화순=정순수기자 unsu@



완도 햇 물길 선별작업 분주

완도군 어민들이 최근 군외면 당인리 선착장에서 청정해역에서 갓 뜯어온 물길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일명 ‘곰창 김’으로 불리는 물길은 김 가공공장에서 마른 김으로 만들어져 백화점에 전량 납품된다.

완도군 어민들이 최근 군외면 당인리 선착장에서 청정해역에서 갓 뜯어온 물길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일명 ‘곰창 김’으로 불리는 물길은 김 가공공장에서 마른 김으로 만들어져 백화점에 전량 납품된다.

<완도군 제공>

함평 5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함평 5일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함평을 소재지의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함평군은 함평을 가리키 5일시장 인근 2천452㎡ 부지에 85대 주차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해 오는 22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주차요금은 1일 5천원이다. 1회 주차시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함평 5일시장 상가와 음식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가 확인을 받으면 2시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이날 말까지 함평을 내국 옛 함평재계소 부지 1천491㎡에 토지소유자인 이승동 함평군 산림조합장의 무상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승용차 기준 30대 주차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함평=황원희기자 hwang@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land auction details for various regions in Jeonnam, including lot numbers, areas, and prices.